

주간기도정보

2024. 5. 1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1회 한국신학포럼, “본질적 신앙과 실천적 목회로 교회 위기 극복해야”

9일 ‘한국교회 140년, 절벽을 마주하다’ 주제로 열려



지난 1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얼마 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 침체, 교인 수 감소와 일부 지도층의 일탈 행위, 세상과의 소통 부재와 다음세대의 탈종교·탈교회 현상, 사회적 영향력 하락 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마주한 것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의미 있는 신학포럼이 최근 열렸다.

(사)누가선교회와 한국신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국신학포럼(대회장 김성만 목사)이 9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140년, 절벽을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25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 평신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본질에서 멀어진 한국교회에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본질 회복과 실천적 행동이 강조됐다.

대회장 김성만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신학적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며 “한국신학포럼을 통한 연구와 발제가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주훈 목사는 이날 ‘십자가의 능력’(롬 12: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변화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하고,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여성화·복지화 등 21세기의 5가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도 진보도 아닌 복음적 감격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에서 본 한국교회 구원 신앙의 반성’에 대해 발제한 정일웅 박사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이신칭의 명제를 오늘날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작 행동하지 않는 신앙 실천의 문제와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성 문제, 교인 수 감소 현상, 가난한 성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도홍 교수는 논찬에서 “코메니우스는 실천적이고 목회적 관점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믿음, 소망, 사랑의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내세우면서 총체적 구원론을 보여준다. 루터도 ‘구원은 여정 가운데 있다. 성도는 의로워진 자이면서 동시에 의롭게 되어가는 자’라고 말했다”라며 “한국교회는 통전적 구원을 향한 역사의 교훈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에 확고히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적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표 논평을 한 최흥영 박사(한국신학연구원 원장)는 이날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순교적인 마음 자세로, 또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을 찾고, 실천적인 목회에 게으르지 않으며, 성령을 통해 한 몸처럼 정확하게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시대에 함께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본질적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누가선교회와 한국신학연합회는 앞으로도 매년 한 차례 한국신학포럼을 개최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과 변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신학적, 목회적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출처: 선교신문 종합).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9:14)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 록 3:19-20)

하나님, 본질에서 멀어져 세속화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생명력을 잃고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을 마주한 한국 교회의 위기를 통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인 되어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예수교회 되어 어두운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한국교회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악한 자의 모든 거짓과 불의의 속임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중국 정부, 지난달 말 탈북민 60여 명 강제 복송

또 다른 탈북민단체는 지난달 탈북민 200여 명 강제 복송 주장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복송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워치(HRW)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 복송으로 탈북민들이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강제 송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중국이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교회 선교사인 스티븐 김(가명) 씨는 “중국 정부가 중국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에서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탈북민 60여 명 강제 송환은 국내 탈북민 구호단체인 JM선교회의 제보를 토대로 최근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다.

또 다른 국내 민간단체도 중국에서 지난달 26일 탈북민 200명가량이 대규모로 강제 복송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울 대표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린성에 있는 ‘백산(바이산) 구류소’에 수용된 탈북민 200명가량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국내에 있는 탈북민 가족과 현지 소식통 등 여러 경로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수백 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데 이어 대규모 강제 복송을 재개한 것이다. 정보당국도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 복송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2020년 초 북쪽 국경을 폐쇄한 이후 중국 정부가 67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에 대해 “중국은 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 협약 등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중국 정부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탈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복송된 사람은 고문, 학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모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한국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탈북민들을 꾀어낸 후 공안에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피해를 보는 탈북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소식통은 “올해 들어 지린(吉林)성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조선족 50대 남성에 의해 공안에 신고당해 체포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이 남성의 말을 믿고 나선 탈북민들이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브로커 행세를 하면서 탈북민들을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유도한 후 공안에 신고해 탈북민들을 넘겨왔다. 이렇게 공안에 넘겨진 탈북민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둘이 아니며, 그중 일부는 현재 감옥살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연합뉴스, 데일리NK 종합).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9-10,15)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명기 3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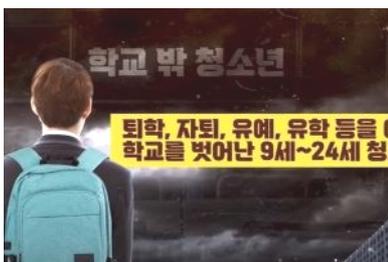
하나님, 자국의 이권을 위해 북한의 불의를 눈감아 주며 강제 복송에 협조하는 중국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의 마음을 약용하는 거짓 브로커를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생존을 위해 분향을 떠난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비참함을 돌아보지 않고 고통이 더하는 징벌로 괴롭히는 무정한 북한 당국과 이를 사로잡는 대적 사탄을 멸하여 주소서. 모든 소망이 주께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송의 위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 받는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만 따라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리라”

‘학교 밖 청소년’ 점점 어려워진다…초등생 비율 5년 새 3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62%는 고교 때 중단, 10명 중 4명 ‘은둔 경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홈스쿨링(재택교육)이나 대안교육 참여가 학교를 중단한 주된 이유였다.

9일 여성가족부가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천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20.8%, 초등학교는 17.0%였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5.6%에 불과했으

나 2021년 9.0%, 2023년 17.0%로 5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보면 고교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심리·정신적 문제’(3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초·중·고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권유(홈스쿨링·대안교육을 위해서)’라는 답이 각각 61.3%, 35.2%로 가장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83.2%·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상담(37.8%), 심리상담·정신과 치료(34.7%), 직업 기술(29.8%), 대안학교(29.6%) 등의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청소년의 59.5%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자유시간 증가’(74.5%),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67.9%), ‘학업 스트레스’(39.6%)·‘학교 통제’(24.1%) 벗어났다’는 답이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 42.9%가 '은둔 경험'이 있었다. 은둔 기간은 '1개월 미만'이 21.9%로 가장 많았다. '1개월-3개월 미만' 10.8%, '3개월-6개월 미만' 3.5%였다. 은둔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6개월 이상의 은둔 경험 비율은 6.4%였다. 은둔을 하게 된 이유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이었다.

은둔 상태를 벗어나게 된 계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정부지원서비스 이용'이 27.3%로 가장 많았다.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9.4%)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은 직전 조사 때인 2021년보다 감소했다. 흡연율은 19.3%로, 2021년보다 8.8%포인트 줄었고, 음주율도 28.7%에서 21.2%로 7.5%포인트 감소했다. 학교 중단 이후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23.6%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1년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장소로는 '멀티방/룸카페'가 16.0%로 가장 많았다. 부모 동행 없이 '일반 숙박업소'(14.8%), '무인 숙박업소'(7.8%) 이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1:17-19)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골로새서 2:25-26)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공교육 안에서 찾을 수 없어 여러 사연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섬김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울과 무기력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은둔하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 탈선하는 다음세대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명확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예수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이 자라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